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2228-0180

光州日報

부자결혼의 꿈은, **이루어진다!!!**
 대표이사이사장 임영환
 광주지사 082-2228-3222

“이원영의원 5·18 송고한 뜻 모독”

與 당직 박탈 등 조기진화 불구 파문 확산

열린우리당 인권위원장이 이원영(경기 광명) 의원의 “광주사태는 직접적인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바로(군) 투입된 것”이란 발언이 송고한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과 함께, 16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의원의 발언은 특히 5·18 기념일을 목전에 두고 나온 것이어서 광주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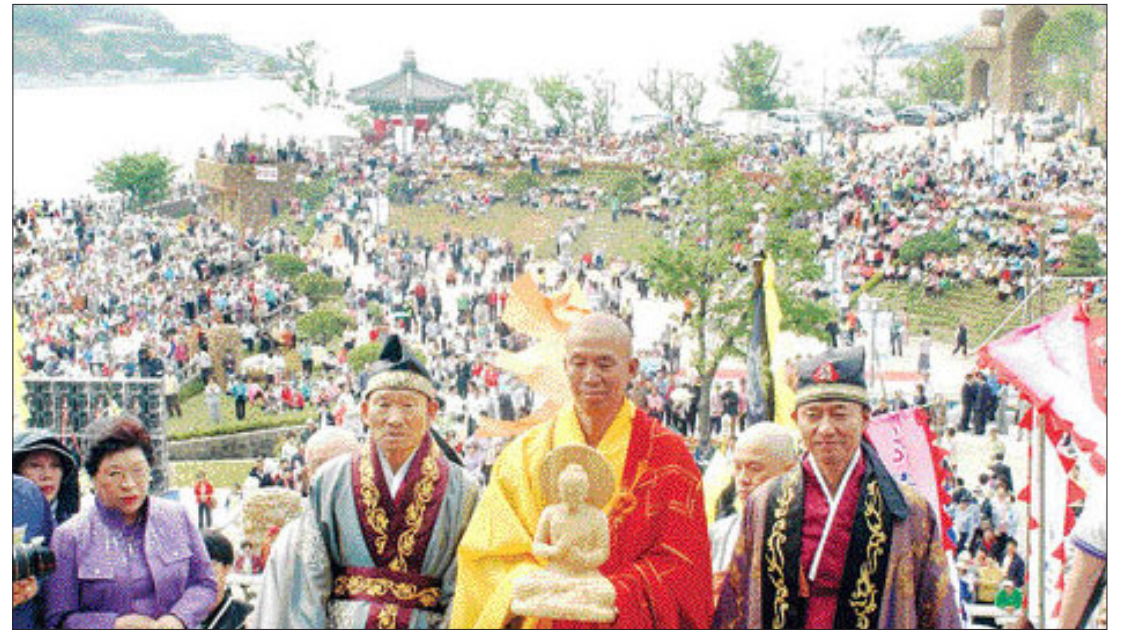
민주당은 선거 정국의 호재로 보고 이 의원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이원영 의원의 당직을 박탈하는 등 파문 진화에 적극 나섰다. 5·18 유족회를 비롯한 5월 단체는

성명을 통해 5·18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었다며, 열린우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들과 네티즌의 비난도 쇄도했다.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와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는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의 발언은 5·18 광주진화쟁점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열린우리당의 허울뿐인 ‘광주정신 계승’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또 14일 대표단 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은 5·18 영령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자 광주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열린우리당은 이 의원을 즉각 출당 조치하고 정동영 의장은 광주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신속하게 수습과 진화에 나섰다. 우리당은 휴일인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당인근특별위원직을 박탈하고 당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상길 5·18 구속자회장, 강신석 목사, 조비오 신부 등을 방문, “경솔한 발언으로 인해 상처 받으신 광주 유

족분들과 부상자분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12시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치신 80년 5월 광주 영령들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워 따름이며, 깊이 반성하며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광주사태는 직접적인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바로(군) 투입된 것”이라고 말해 5.18단체 등의 반발을 사는 등 파장을 낳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1,600년전 백제불교 도래 재현



1천600여년 전 마라나타 존자가 이 땅에 최초로 불교를 전파한 모습을 재현한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준공 및 불교 전래 재현식’(전라남도·영광군 주최)이 지난 13일 영광군 범성포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본행사인 불교 전래 재현식과 함께 사찰음식 전시, 목관불경타본 체험, 탑원기도 체험(돌탑 쌓기, 탑돌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행사장

을 찾은 1만5천여명의 불자와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사진은 마라나타 존자로 분한 백양사 수좌 상암스님이 불상과 불경을 들고 사면불상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왼쪽부터 김봉열 영광군수, 상암스님, 이근경 전남도 정부무지사. /영광=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우리-민주, 사활 건 ‘호남 표심잡기’

與, 광주시장 후보 조영택씨 전략공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16일 남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패의 분기점인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이번주부터 사활을 건 선거전에 돌입했다.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가 난산 끝에 확정된 데 이어 16~17일에는 정식 후보자 등록이 실시되는 등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됐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자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갖고 당의 사활을 건 ‘호남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 <조영택 후보 전략공천=열린우리당은 14일 국회 당 의정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영택(사진) 전 국무조정실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선정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인준했다. 이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천심사위원회는 광주지역 국



회의원들의 공천요청을 받아들여 조 예비후보를 전략공천을 통해 광주시장 후보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경선 원칙과 전략공천을 놓고 팽팽한 찬반논란이 벌어졌으며 결국 표결까지 진행돼 8(전략공천 찬성) 대 4(전략공천 반대) 대 1(기권)로 조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이 결정됐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15일 광주에서 광주시장과 전남도당 공천자 수여식 및 선대위 발대식을 각각 가진데 이어 17일에는 한화갑 대표 등 지도부원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뽑는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들은 광

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27명, 지역구 광역의원 62명, 비례대표 광역의원 8명, 지역구 기초의원 270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41명 등 모두 410명이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기간 동안 1천200여명이 출사표를 던져 평균 3대 1 내외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 공략=열린우리당은 5·18 전야제에 열리는 전야제 행사와 5·18 기념식에 전연 참석할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주문했고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도 대부분 전야제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장 등 지도부도 17일 대전, 충남을 거쳐 광주에 입성, 전야제와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15일 광주에서 광주시장과 전남도당 공천자 수여식 및 선대위 발대식을 각각 가진데 이어 17일에는 한화갑 대표 등 지도부원과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갖는다. /임동욱기자 tuim@

최상-최하위층 사교육비 10배

소득 최상위 계층의 사교육 관련지출이 최하위 계층의 10배에 달해 소득계층간 사교육 지출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의 2006년 1·4분기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계층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는 33만9천원으로 최하위 10%인 1분위 계층 3만4천원의 약 10배나 됐다. 이런 격차는 지난해 1·4분기의 6.3배보다 더 확대된 것이다. 올해 1·4분기 중 전국 가구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는 15만 2천원으로 지난해 1·4분기의 13만3천원보다 14.3% 늘어났고 관련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최정호기자 choice@

“이념보다 실용주의 강해”

본사 주최 ‘중산층 포럼’

광주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사회학회(회장 임현진 서울대 교수)가 공동 주최한 ‘중산층의 역할과 사회발전 2차 포럼’이 ‘한국의 중산층, 개혁적인 가’란 주제로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 사회의 기층층에 대한 중산층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날로 가속화되어 가는 중산층 쇠퇴 현상과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한때 전체의 90%까지 육박하던 ‘나는 중산층’이라는 응답은 IMF 경제 위기 이후엔 각종 조사에서 70% 안팎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중산층 귀속의식의 약화는 사회 불안과 정치적 갈등의

확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중산층의 정치적식은 극단적 경향을 띠지 않기 때문에 타협이 가능하며, 이런 타협의 가능성 때문에 중산층의 정치의식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산층의 움직임을 놓고 “어떤 이념적 방향을 보이기보다 생존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 현실문제 해결의 정치세력에 힘을 넣어주는 실용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완 광주일보 논설위원은 “중산층에게 개혁과 보수 어느 한 쪽소리를 일관되게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며 “중산층의 모순된 입장은 오히려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완충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여성경제인 포럼 오늘 오후6시 무등파크호텔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남부대학교
 http://www.nam.ac.kr

국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 공모
 접수기간 : 4월 25일 ~ 5월 25일까지
 http://www.kwangju.co.kr

영무플러스존 분양!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된 영무플러스존에 투자하십시오

영무플러스존	수익성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무플러스존은 영무플러스존에 투자하십시오 영무플러스존은 영무플러스존에 투자하십시오 영무플러스존은 영무플러스존에 투자하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무플러스존은 영무플러스존에 투자하십시오 영무플러스존은 영무플러스존에 투자하십시오 영무플러스존은 영무플러스존에 투자하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무플러스존은 영무플러스존에 투자하십시오 영무플러스존은 영무플러스존에 투자하십시오 영무플러스존은 영무플러스존에 투자하십시오

문의처: 062-654-8844